

중국어 복합문 번역양상 고찰*

— 문학작품 번역을 대상으로 —

신 지 언**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V. 번역 생략 |
| II. 접속관계 형태표지 번역 | V. 나가며 |
| III. 문장 구성 전환 | |

I. 들어가며

번역은 번역물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문학작품의 번역과 신문기사의 번역전략이 같을 수는 없다. 문학작품의 번역은 번역작품이 목표언어권 독자에게도 문학작품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번역의 최대 목표는 원문의 의미와 표현기교를 온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함’과 ‘자연스러움’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직역과 의역, 형식적 등가와 기능적 등가 등의 이분법 논리로서는 해결이 어렵다. 온전하고 자연스러운 번역 작품을 가능하게 하는 번역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번역행위를 단어 간의 치환이 아닌, 텍스트 간의 전환 즉 출발텍스트에서 목표텍스트로의 전환으로 보아야 한다. 텍스트 간의 전환을 위해서는 텍스트 안에서의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온전하게 파악해야 한다. 단어의 의미는 텍스트 내에서 주변 단어들과 결

* 이 논문은 2014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영산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함함으로써 비로소 고유한 의미와 역할을 지니기 때문이다.¹⁾ 번역은 텍스트 내에서 파악된 의미를 자연스러운 목표어로 표현해 내는 것이다. 출발어의 문형과 문법에 영향을 받아 어색하게 표현된 문장을 자연스러운 목표어로 다듬는 과정이 텍스트 전환이다. 이처럼 번역행위를 텍스트 간의 전환으로 이해할 때, 다수의 번역결과물에서 전환양상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번역물을 통해 번역현상을 기술하게 되며 일반론의 도출과, 나아가 번역이론을 확립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

이에 본 논문은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번역현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중국 문학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특히 여러 개의 절로 구성된 중국어 복합문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합문에 대한 처리는 번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중국 원문의 표현과 의미가 한국어 번역문에 정확하게 담겨있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문에 담긴 의미가 손실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텍스트 간 전환에서 발생한 문장구성의 변화들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번역 현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번역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온전하고 자연스러운 번역문에 도달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우선 복합문을 구성하는 접속사 및 부사 등 형태표지의 번역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절의 나열은 접속어 혹은 관련 부사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형태표지가 생략된 원문의 번역양상도 살펴본다. 이어서 다수의 절이 연역적으로 나열된 중국 원문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변환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언어 간 텍스트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끝으로 번역의 생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략의 원인과 그 결과 생성된 번역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비교

1) 이승일, <번역의 단위에 대한 고찰: 자료언어학의 어휘의미론적 관점>, 《번역학연구》제11권 2호, 2010, 68-76쪽.

2) 박성희, <텍스트성과 번역전환-영한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제1권, 2000, 95-96쪽.

분석 작품은 중국소설 〈玉米〉(毕飞宇著)와 〈三十年前的一次长跑比赛〉(莫言著), 그리고 이들 각각의 번역본이다.³⁾

II. 접속관계 형태표지 번역

절의 연역적 전개는 중국어 문장에서 흔히 보이는 문형이다. 절의 나열에는 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혹은 부사가 등장하며 때로는 이러한 형태표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한국어 문장은 절 사이의 관계를 주로 연결어미를 통해 드러낸다.⁴⁾ 중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은 이러한 형태표지를 번역문의 연결어미에 반영하고, 형태표지가 생략된 경우에는 절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내어 이를 반영하게 된다. 형태표지의 정확한 파악 여부는 번역문의 완성도로 드러난다. 우선 중국어 복합문 번역에서 접속사 및 부사의 역할과 이들이 번역문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형태표지 존재

우선 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및 부사가 존재하는 중국어 문장이 한국어로 번역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접속사나 부사가 존재함으로써 문맥은 명확해지며 문장이해가 용이해진다. 번역자는 이러한 형태표지의 역할을 파악하여 번역에 반영하게 된다. 이들의 번역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본고의 번역 예문은 실제 번역양상의 예를 기술하기 위함이고 번역비평이 목적이 아님을 밝혀둔다.

4) 김진아, 〈한중 통번역에 있어서의 복합문 운용에 대한 오류 분석-한국어의 이어진 문장과 중국어의 복합문 비교〉, 《중국어문학논집》23호, 2003, 96-97쪽.

1) 접속사

접속사가 적절하게 번역된 경우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尽管有的革命干部当众骂蔣桂英是大破鞋，但见了人家还是馋得流口水。
비록 어떤 혁명위원회 간부 나리께서 장구이잉이 다 떨어진 신발짝 같은 갈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해도, 그녀를 마주 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군침을 흘리기 십상이었다.
- ② 据说这人解放前是胶济铁路的总会计师，解放后被吸收到银行工作，他本事太大，连共产党也不得不用。
일설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해방 전 자오지 철도 회사의 수석회계사였다가 해방 후 은행 업무에 흡수되었는데, 능력과 수완이 워낙 뛰어나 공산당조차 그를 기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예문 ①에서는 접속사 “尽管”과 “但”이 두 절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번역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었다. 예문 ②에서는 “据说”의 의미가 문장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번역문도 이에 부합하게 종결어미에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접속사의 번역이 원문의 의미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③ 解放前，蔣桂英隔着玻璃窗跟一个大资本家亲了一个嘴，就挣了十根金条，如果不隔着一层玻璃、如果跟她通腿睡一个被窝……我的天，你们自己想想吧，那需要多少根金条!
해방 전에 여배우 장구이잉이 유리창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어느 대자본가에게 입맞춤을 한 번 해주고 엇가락만큼이나 굵다란 황금 막대를 열 개나 받았더군. 그러니 유리 한 겹을 사이에 두지 않고 여자와 한 이부자리 속에서 결다리 끼고 농탕질을 쳤다면...맙소사, 자네들도 상상해보게, 얼마나 많은 황금 막대를 안겨주었겠나....바로 그 장구이잉이 우리 누나와 함께 양계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다.
- ④ 每到晚上他们就吹拉弹唱，尽管有人讽刺他们是叫花子唱歌穷欢乐。
그들은 날마다 밤만 되면 비파를 뜯고 피리를 불며 노래를 불렀다. 누

군가 그 노는 꼬락서니를 보고 밥 빌어먹는 거지타령이라고 풍자했지만, 그들이 환락의 극치에 오른 것만큼은 사실이었다.

예문 ③의 원문에서는 “如果”를 통해 ‘만약 유리가 사이에 없었다면, 만약 한 이불에서 몸을 쉬었다면...’이라는 점진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이를 하나의 상황으로 번역함으로써 점진적 상황이 사라지고 말았다. 절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생략함으로써 문맥이 달라진 것이다. 문학번역이 일반번역 보다 직역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함은⁵⁾, 바로 작가의 표현방식을 충실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생략은 문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예문 ④에서 접속사 “尽管”은 절의 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후행절 끝까지 “尽管”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 즉 ‘설령 거지들이 타령하며 위안을 삼는 거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말이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尽管”의 영향범주를 “唱歌”까지로 분석하고 뒤에 오는 “穷欢乐”를 하나의 절로 이해하였다. 접속사의 영향범주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오역이 발생한 것이다. 접속사의 의미범주 파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부사

다음은 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의 번역을 살펴보도록 한다.

- ⑤ 也许是右派把痛苦藏在肚子里，不让我们这些庄户人看出来，对，就是这个理儿。

어쩌면 우파분자들은 자기네 고통마저 뱃속에 감춰 넣고 우리 같은 시골뜨기 농사꾼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 ⑥ 右派集合到农场后，场里人起初还有意见，说是生活本来就困难，又送来一批酒囊饭袋，这还了得!

우파분자들이 농장에 집결할 때만 해도 농장 사람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했다. 가뜰이나 살기 어려운 관국에 또 쓸모없는 밥버러지들만 보내

5) 박성희, 앞의 논문, 108쪽.

왔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

예문 ⑤에서는 “也许”의 의미가 두 번째 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번역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종결어미로 나타내고 있다. 예문 ⑥에서는 두 번째 절에 사용된 “起初”가 두 절의 시간간격이 매우 짧음을 보여주고 있다.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부사에 근거하여 ‘~일 때만해도’라는 연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두 절의 시간 관계가 연결어미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부사라는 형태표지를 근거로 절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이 번역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부사를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함으로써 번역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 아래 예문들은 부사의 의미가 번역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 경우들이다.

- ⑦ 难道老虎还需要将牛肉剁成肉馅? 秃鹫其实也未必感谢天葬师的劳动。
호랑이가 쇠고기를 먹겠다고 요구할 때 잘게 다져서 고기소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격으로, 천장사가 칼로 죽은 이의 시신을 잘게 저며 대머리 독수리가 먹기 좋게 늘어놓는다고 해서 독수리들이 천장사의 노고에 반드시 고마워한다고 볼 수도 없지 않은가.
- ⑧ 也许别地方的右派六十年代时就哭天抹泪, 反正那时候我们那地方的右派欢天喜地, 充满了乐观主义精神。
만 지방 우파들이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눈물콧물 짜내던 1960년대 흑독한 시절에, 아무튼 우리 교장의 우파분자들이 생기를 잃지 않고 활기 차게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낙천주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예문 ⑦의 원문을 살펴보면 “难道”의 의미는 앞 문장에서 끝나야 한다. ‘설마’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설득력을 더하게 된다. 즉 ‘독수리도 고마워하지는 않을 것이다’의 근거가 된다. 부사 “其实”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의 관계를 알려주는

형태 표지이다. 그러나 번역문은 “难道”의 의미를 문장 끝까지 가져갔고, “其实”의 번역은 생략하였다. 이로 인해 “难道”가 부정하는 대상이 모호해졌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도 설득력이 약해지고 말았다. ‘괜한 짓’이라는 원문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접속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의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결과이다. 예문 ⑧을 살펴보면 문두에 나온 부사 “也许”는 해당 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부사이다. 따라서 첫 절의 어미가 ‘~이었나 보다/~이었을 것이다’로 끝나야 한다. 왜냐하면 화자는 다른 지역 우파의 생활에 대해서만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 고향에서의 우파분자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다. “反正”은 이러한 전환 관계를 확인한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也许”를 문장 전체로 번역하였다. 이로 인해 추측한 내용은 확신으로 번역되고, 확신하는 내용은 추측으로 번역되었다. 부사의 수식범위가 오역됨으로써 절의 관계에 오역이 발생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형태표지가 존재하는 문장에서의 번역양상을 살펴보았다. 절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표지의 적절한 번역은 원문에서의 관계를 충실하게 옮겨오는 반면, 의미범주의 오역이나 번역생략 등은 의미에 영향을 미쳐 모호하거나 원문과 상이한 문장으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형태표지의 번역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문맥을 위해 충실하게 번역될 필요가 있다.

2. 형태표지 부재

1) 관계 명시

다음은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나 부사 등 형태표지가 부재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경우 한국어 번역에서는 접속사 혹은 연결어미 등을 추가하여 관계 혹은 문맥이 드러나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접속사가 첨가되는 것은 의미를 좀 더 명백히 전달하려는 ‘명백성의 경향’ 때문이다.⁶⁾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 박성희, 앞의 논문, 99쪽.

- ⑨ 他家庭出身富农，本人成份右派。
그의 집안은 부농이라 그의 출신성분 역시 ‘우파’였다.
- ⑩ 他的话我们听不明白，但省里来的右派汪高潮肯定听明白了。汪高潮用赞许的目光看着老朱，还不停地点头。
그 말뜻을 우리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으나, 성 시내에서 쫓겨 내려온 우파분자 왕가오차오는 명확히 알아들은 모양이다. 왕가오차오가 찬동하는 눈빛으로 라오 주를 바라보고, 그칠 새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으니까.
- ⑪ 大家看到他这样子，总觉得有点滑稽，就像看到一个猴子跟着人学样似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동작을 보고 어딘가 모르게 익살스럽다고 느꼈다. 영락없이 원승이가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 ⑫ 阴历的二月，也就是阳历的三月，玉米瘦去了一圈。她抱着王红兵四处转悠了。
음력 2월, 그러니까 3월에 위미는 한참 살이 빠졌다. 흥빙을 들쳐 안고 사망을 어르며 다녔기 때문이다.
- ⑬ 到了竿子前，一团黑影子晃了一下我们的眼，他就翻到横竿对面去了。
가로대 앞에 도달한 순간, 시꺼먼 그림자 한 덩어리가 우리 눈앞에 번뜩했을 뿐인데, 그는 벌써 가로대를 훌쩍 뛰어 반대편으로 넘어가 있었다.
- ⑭ 这些右派，看样子是欢天喜地的。
그런데 이 우파분자들은 언제 보아도 싱글벙글하면서, 뭐가 그리 좋고 기쁜지 얼굴에 웃음기가 떠날 때가 없고 생기발랄했다.

예문 ⑨는 문맥상 두 절이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번역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드러내었다. 뒤 절에 대한 번역에서는 부사 ‘역시’를 추가함으로써 절 사이의 문맥을 분명히 하였다. 예문 ⑩을 살펴보면, 왕가오차오는 라오 주가 하는 말을 이해했다. 이렇게 판단한 까닭은 그가 라오 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이다. 앞 뒤 내용이 결과와 원인의 관계이며, 이러한 인과관계의 문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번역문에서는 ‘~으니까’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였다. 예문 ⑪과 ⑫에서도 절과 절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아무

런 형태표지가 없다. 이에 번역에서는 종결어미를 통해 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⑬의 원문에서는 동작의 빠른 전개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동작을 의미하는 형태표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번역문에서는 절의 연결에 ‘~한 순간’, ‘~했을 뿐인데’, ‘벌써’ 등을 사용함으로써 동작의 흐름이 긴박하게 이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연결어미의 사용으로 원문의 긴밀함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문 ⑭에서는 문맥의 흐름상 앞 문장과 논리가 달라짐에 따라 번역문에서 접속사 ‘그런데’를 추가하였다. 이상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어는 인과관계의 형태표지 생략이 많으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번역하게 된다.⁷⁾

2) 관계 오류

그러나 때로는 연결어미 혹은 접속사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맥이 명확하지 않거나 오역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⑬ 一个人像流水一样念数, 十几把算盘打得就像爆豆一样, 人人都想在老富面前显身手。

그 한사람이 숫자를 셈하는 솜씨가 청산유수로 막힘이 없을 뿐 아니라, 주판을 무려 열 틀이나 늘어놓고 쉼 새 없이 주판알을 튕기는 소리가 쿵 볶듯이 들렸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라오 푸가 보는 앞에서 솜씨를 발휘해보고 싶어 했다.

⑭ 后来发现, 这娘们其实也不是什么凤凰, 她躲在鸡舍里偷喝生鸡蛋, 被我姐姐当场抓住。

7) 정룡현(2012)은 중국어 문장의 인과관계 번역이 한국어 번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중국어번역에서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점>, 《중국조선어문》제3호, 75쪽), 백수진(2011)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서술 순서가 원인+결과로 유사하며, 결과가 먼저 언급되는 것은 도치에 의한 문체적 효과라고 말한 바 있다. (<Rich Dad Poor Dad와 중국어 번역본, 한국어 번역본 비교분석>, 《동서비교문학저널》 24호, 2011. 43-45쪽.)

나중에 와서 우리는 그 처녀가 실제로 봉황 따위도 못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닭장 안에 숨어 낱달걀을 훔쳐 마시다가 우리 누나한테 현장에서 붙잡힌 적이 있었다.

- ⑰ 那时候人民群众生活比较困难, 肉类比较缺乏, 国家干部大概还能吃点肉, 老百姓只能吃点老鼠麻雀什么的解解馋。

이 무렵은 우리 인민대중의 생활이 비교적 어려운 시기였고, 육류 또한 모자란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 간부들조차 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했을 듯싶고, 단백질이 필요한 일반백성들은 그저 들쥐나 참새 나부랭이라도 잡아먹어 부족한 육류 공급을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 ⑱ 牛不吃草可以找右派; 鸡不下蛋可以找右派; 女人不生孩子也可以找右派。

소가 풀을 뜯지 않을 때 우과분자를 찾아가고, 닭이 달걀을 낳지 않아도 우과분자를 찾아가며, 하다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우과분자를 찾아가다.

- ⑲ 可人家李镇握着个粪筐子到田野里转一圈, 回到黑板前, 拿起粉笔就写, 根本不用打草稿。

하지만 리전은 절대 그런 법이 없었다. 똥통을 메고 밭에 나가 한 바퀴 돌며 거름을 주고 돌아오기 무섭게 그는 칠판 앞에 서서 곧바로 분필을 쥐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근본적으로 초고 나부랭이를 미리 써 들고 베끼는 법이 없었다.

예문 ⑬에서는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표지 없이 세 개의 절이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번역문에서는 절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의미를 문맥에 맞게 더해줘야 한다. 원문에서의 절의 관계는 결과와 원인이다. 따라서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라오 푸 한 사람이 물 흐르듯 숫자를 읽어가면, 다른 십여 명이 십 여 개 주판을 킁 볌는 소리가 나도록 튕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라오 푸 앞에서 주판숫씨를 뿜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문은 절 사이의 관계를 유추하는데 실패하여, 마치 한 사람이 숫자를 읽고 주판 여러 대를 동시에 튕기는 것처럼 해석하였다. ‘~일 뿐만 아니라’의 연결어미는 오판의 결과이다. 두 번째 절의 생략된 주어, 첫 번째 절의 주어와 동일하다고 오판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세 번째 절에

등장하는 주어가 두 번째 절의 주어이다. 이로 인해 번역에서도 원인을 나타내는 적절한 접속사나 어미가 추가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추가되었다. 예문 ⑯에서 뒤의 두 절은 앞의 두 절에 대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번역에서는 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어미 혹은 접속사가 필요하다. 즉 앞 절의 어미를 ‘알게 되었으니’로 수정하거나 혹은 뒤의 절을 ‘...때문이다’로 번역한다면 원문의 문맥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번역문에서 이를 추가하지 않음으로 문맥이 모호하게 되었다. 예문 ⑰의 원문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절은 역접관계이지만,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표지는 없다. 이에 번역문에서는 둘의 관계를 병렬로 번역하였고 결과적으로 문맥이 달라졌다. 생략된 절의 관계를 유추해 내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원문의 역접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간부는 그래도 고기를 좀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저 쥐나 참새 같은 것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 예문 ⑱에서는 절의 전개를 통해 점점 황당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에서 추가된 부사는 원문의 의미를 상반되게 전달하고 있다. 원문과 부합하는 문맥을 위해서는, ‘심지어’ 정도의 부사가 추가되어야 한다. 예문 ⑲에서 앞의 세 절은 동작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러나 번역문의 ‘~하기 무섭게’처럼 행위의 빠른 전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발일을 끝마치고 칠판 앞으로 와서 일을 한다는 일상의 순서를 말할 뿐이다. 따라서 번역문과 같은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원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문 ⑲의 원문은 ‘거품을 주고 돌아오면 칠판 앞에 와서 분필을 들고 이내 거침없이 써내려간다’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와 부합한다.

이상과 같이 접속사나 부사 없이 나열된 절들은 번역문에서 종종 오역이 발생하게 된다.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적합한 연결어미를 사용하거나, 아예 적합한 어미를 추가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역 혹은 모호한 문장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생략된 접속사를 찾아내어 그 의미를 번역에 반영하는 것이 문맥을 분명히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번역의 완성도로 이어지게 된다.

Ⅲ. 문장 구성 전환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단어들이 모여 이루어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번역은 파악된 의미를 이에 대응하는 목표언어 텍스트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출발텍스트에서 목표텍스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단어 간 대응이 아닌 내용의 등가가 된다. 이 과정에서 출발텍스트의 형태나 조합이 목표텍스트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⁸⁾ 따라서 번역자는 출발언어와 목표언어 간의 텍스트 구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텍스트의 간섭으로 인해 어색한 번역을 하기 쉽다.

여러 개의 절이 나열된 중국어 텍스트는 한국어로의 번역과정에서 구성의 변화를 겪는다. 절의 성질이나 구성이 원문과는 다른 방식의 텍스트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언어에는 그 언어가 ‘선호하는 표현’이 있으며⁹⁾ 한국어의 선호표현이 중국어와 달라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 문장의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의 전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장 전개 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관형어로 전환

주술구조로 된 절을 관형어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¹⁰⁾ 예를 들면 아래

8) 박정준, <등가를 통한 번역의 이론과 구성 요소 분석>, 《비교문화연구》 19집, 2014, 252-254쪽.

9) ‘선호하는 표현’이란 사건이 언어로 표현될 때 그 언어 화자가 선호하여 취하는 표현방식을 말하며, 모든 언어에는 ‘선호하는 표현’이라 불릴만한 것이 있다.(서민정<사태파악의 한일대조연구>, 제이앤씨, 2010, 37쪽) 재재인용. 김윤정, <현대중국어 수동구문의 한국어 번역 패턴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태의 불일치현상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0집, 2012, 70쪽)

10) 백수진(2011)은, 중국어의 관형어+피수식어 구조가 한국어의 주어+술어 구조로 바뀌는 현상과, 중국어의 주어+술어 구조가 한국어의 관형어+주어 구조로

와 같다.

- ⑳ 开关小小的, 像一个又硬又亮的感叹号。
작은 스위치는 단단하게 빛나는 느낌표 같았다.
- ㉑ 她的袖口挽得很高, 两条胳膊已经冻得青紫了。但是玉米的脸颊红得厉害, 有些明亮, 发出难以掩饰的光。
높이 걷어붙인 양 소매 아래 드러난 팔뚝은 얼어서 보랏빛이었지만, 상기된 두 뺨은 맑게 빛났다. 그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는 빛이었다.
- ㉒ 富广家的显然还没有明白玉米的深刻用意, 冒失了, 她居然伸出胳膊想把王红兵从玉米的怀里接过去, 嘴里还自称“姨娘”, 说:“姨娘抱抱嘛, 肯不肯嘛?”
위미의 깊은 뜻을 파악하지 못한 푸광네는 호들갑을 떨며 흥빙을 받아 안으려고 했다. “이모가 안아줄까?”
- ㉓ 这件事相当大, 不能有半点马虎。
이런 중대한 일에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 ㉔ 第二天他一大早就到大队部去了, 把所有的屋梁都看了一遍, 没有尸体挂在上面。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그는 건물 전 층을 다 둘러보았지만 목맨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 ㉕ 王连方的心到了这个时候才算放下了, 发了一圈香烟, 开始了说笑。
그제야 안심한 왕련팡이 담뱃불을 붙이고 껄껄 웃었다.
- ㉖ 玉米一见到高老师便是一阵心慌, 好像高老师捏着她的什么把柄了。
가오 선생을 본 위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오 선생이 자기 명줄을 쥐고 있기라도 한 듯이.
- ㉗ 玉米走上岸, 背过身去, 一遍又一遍地读彭国梁的信。
기슭으로 올라온 위미는 돌아서서 핑귀량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 ㉘ 玉米还过神来了, 跑到水边, 顺着风和波浪的方向追逐而去。
퍼뜩 정신이 든 위미는 물가로 내려가 바람과 물살의 방향을 따라 달렸다.

바뀌는 조건을 논한 바 있다. <중국현대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 문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한국어학》 53집, 2011 참조. 본 논문에서는 관형어로의 전환을 구체적인 예들로 증명한다.

- ㉔ 当时玉米就在厨房里烧火, 听得清清楚楚。
 당시 부엌에서 불을 피우던 위미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 ㉕ 如俊家的也抱着孩子, 看见玉米过来了, 把自己的孩子送进里屋, 拿出了板凳, 却把王红兵抱过去了。
 아이를 안고 있던 루쥘네는 위미가 오는 것을 보고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는 나무 의자를 내와 흥빙을 받았다.
- ㉖ 二婶子的家在巷子的那头, 她时常提着丫杈, 站在阳光底下翻草。二婶子远远地打量着施桂芳, 动不动就是一阵冷笑。
 골목 끝에 들췌 숙모의 집이 있었다. 종종 호미를 들고 햇빛 아래에서 풀밭을 매던 그녀는 멀리서 구이팡을 보며 얼굴에 냉소를 띠었다.

예문 ㉔에서는 원문의 주술구조 절을 ‘작은 스위치’로 번역하여 관형어를 지닌 주어구조로 전환하였다. 예문 ㉕에서 첫 번째 절은 뒤 절의 주어 ‘팔뚝’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번역되었다. 예문 ㉖에서는 주술구조로 된 절을 주어 ‘푸광네’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번역하였다. 예문 ㉗, ㉘에서도 주술구조로 이루어진 절을 관형어가 주어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였다. 예문 ㉙에서는 주술구조로 이루어진 축약절에 대해 ‘왕렌팡’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번역하였다. 예문 ㉚에서는 주술구조의 축약절에서 일부를 주어 ‘위미’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번역하였다. 예문 ㉛, ㉜, ㉝에서는 처음 절을 주어 ‘위미’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번역하였다. 예문 ㉞에서는 처음 절을 주어 ‘루쥘네’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번역하였다. 예문 ㉟에서는 두 개의 절을 통합하여 주어 ‘그녀’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번역하였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관형어로 전환된 절은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후행절을 관형어로 번역하여 목적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선행하는 절에 나타나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㉟ 村子里的男孩一般都不用大号, 大号是学名, 只有到了课堂上才会被老师们使用。

대개 마을에서는 사내아이들의 본명을 부르지 않았다. 본명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를 때나 쓰는 것이었다.

- ③ 大缸旁边一张桌子上摆着一摞粗磁大碗, 跟赵一曼同志用过的那种一模一样。

커다란 물독 곁에는 탁자를 하나 놓고, 탁자 위에는 자오이만 동지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로 거칠게 빗어 구운 푹배기 사발을 몇 개쯤 늘어놓았을 따름이었다.

예문 ②에서는 뒤의 절을 앞의 목적어 “学名”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번역하였다. 예문 ③에서도 마지막 절을 관형어로 해석하여 목적어 ‘푹배기 사발’을 수식하도록 번역하였다.

이처럼 관형어로 변환된 절은 주어의 수식하며 주어구의 일부가 되거나 목적어를 수식하며 목적어구의 일부가 된다. 전환된 내용은 하나의 절에 부속되는 문장성분으로 변화한다. 동일한 인물 주어에 여러 개의 절이 나열된 경우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다.

2. 부사어로 전환

인물주어가 중심이 되는 절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형어로의 전환이 많았다. 그러나 절의 내용이 그와 같지 않은 경우, 번역에서는 부사어로의 전환이 자주 보인다. 즉 일부 절이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전환되어 번역되는 것이다. 이 역시 절을 문장성분으로 전환함으로써 절의 연역적 나열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④ 王有庆家的窗户慢慢拉开一道缝隙, 露出了王有庆老婆的红棉袄。

빠끔히 열린 창문 사이로 여우칭네의 저고리가 보였다.

- ⑤ 这时候高音喇叭突然响了, 传出了王连方母亲的声音。

그때 갑자기 고음의 메가폰 소리로 왕렌팡 모친의 음성이 들려왔다.

- ⑥ 玉米抱着小八子, 专门往妇女们中间钻, 而说话的对象大多是一些年轻的

母亲。

위미는 바즈를 안고 일부러 아낙들 사이에 끼어들어 몇몇 젊은 엄마들과 수다를 떨었다.

③7 玉米站在他们家的门口，站住了，不走，一站就是好半天。

위미는 그 집 문 앞에 버티고 서서 만나질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③8 王连方一听到“箍桶匠”、“小三子”就再也没有接话，不会是什么人高马大的人家。

렌광은 ‘통장이’네 ‘셋째’란 말을 듣자 마뜩찮은 마음에 더 말을 붙이지 않았다.

③9 那天晚上王连方在村子里转到十一点钟，睁大了眼睛四处看，竖起了耳朵到处听。

그날 저녁 왕렌광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밤 열한시까지 온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④0 冠军摇摇头，表示没办法。

우승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절레절레 도리질을 했다.

④1 我们学校用大锅烧上两锅开水，倒在操场旁边的一口大缸里，缸上盖一个圆木盖子，防止刮进去太多的尘土。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는 대형 가마솥으로 물을 두 솥 끓여 운동장 한구석에 놓아둔 커다란 독에 부어넣고, 바람에 흩날리는 흙먼지가 너무 많이 섞여들지 않게끔 물독에 등그런 나무뚜껑을 덮어놓은 것이 전부였다.

예문 ③4, ③5에서는 주술구조의 절을 상황부사어로 전환하여 번역함으로써 문장의 술어 성분을 수식하고 있다. 예문 ③4, ③5에서는 모두 사물이 주어 가 되는 절을 상황묘사의 부사어로 전환하였다. 예문 ③6에서는 주술구조로 된 마지막 절을 부사어와 술어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문장의 주어 를 ‘위미’로 통일하여 문맥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 예문 ③7, ③8에서는 마지막 절을 부사어로 전환하여 술어를 수식하도록 번역하였다. 이 역시 주어 를 단일화하고 문맥을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 ③9에서는 뒤 두 개 절을 부사어로 전환하여 번역하였다. 예문 ④0에서는 후행 절을 부사어로 해석하여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전환하였다. 예문 ④1에서는

마지막 절을 부사어로 번역하여 앞 절의 술어를 수식하도록 번역하였다. 이상의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사어로의 전환은 주로 후행절에서 이루어지며, 선행절이 부사어로 바뀌는 경우는 인물주어 보다는 사물주어로 이루어진 절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상과 같이 절의 성분 전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환은 구조상 의미상 독립된 절을 문장 일부의 수식성분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와 술어가 줄어들며, 통일된 주어 아래 단일한 술어를 갖게 된다. 이는 절의 나열보다 수식어로의 전환을 선호하는 한국어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한 문장에 상이한 주어가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어로 통일하려는 경향 또한 보여준다. 주어 간소화의 예는 관형어로의 전환에서도 보인다.

㉔ 如俊家的长得很不好，眼睛上头又有毛病，做支书的父亲是不会看上她的。

루쥘네는 못생겼고 눈가에 흉터도 있어 지서인 아버지 마음에 들 타입이 아니었다.

예문 ㉔에서 마지막 절은 원문에서는 주술구조이지만 주어가 앞의 절에 나온 주어와는 상이하다. 이에 번역에서는 ‘루쥘네’를 주어로 하는 술목구조로 전환하였다. 전환을 통해 문장 주어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관형어 혹은 부사어로의 전환은 공통된 특징을 담고 있다. 바로 절의 나열을 지양한다는 점이다. 중국어와 달리 문장의 연역적인 나열은 한국어의 선호표현이 아닌 것이다. 번역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수식 성분으로의 전환이 그 한 증거가 된다.

IV. 번역 생략

1. 부연 생략

앞 장에서는 여러 개의 절로 나열된 문장이 번역을 통해 구성이 전환되는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을 위해 절의 성격을 전환한 경우들이다. 한편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분석해 보면, 절의 번역 양상에는 절의 전환 이외에도 절의 의미를 축약이나 생략하는 경우들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문의 어휘 등 표현을 모두 번역에 반영하는 경우 때로는 의미가 중복되거나 문장이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이다. 번역효과가 번역에 드는 노력에 반비례 할 때 번역자는 원문의 내용을 축소 혹은 생략하게 된다. 이러한 번역 생략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④③ 城里的人喜欢伤叹“春日苦短”，那里的意思要文化得多，心里修饰的成分也多得多。

도시 사람들은 ‘봄날은 쓰고 짧다’며 한탄하길 좋아한다. 교양과 수사가 넘치는 말이다.

④④ 如俊家的长得很不好，眼睛上头又有毛病，做支书的父亲是不会看上她的。这一点玉米有把握。

루쥘네는 못생겼고 눈가에 흉터도 있어 지서인 아버지 마음에 들 타입이 아니었다.

예문 ④③에서는 절에 나타나는 여러 표현들을 생략하여 번역하였다. 생략적 번역을 하였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표현이 되고 있다. 예문 ④④에서는 마지막 문장의 번역이 생략되었다. 앞 문장에서 이미 위미가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음이 표현되었다. 따라서 번역문에서는 뒤에 이어지는 부연적인 표현을 생략하였다.

2. 묘사 생략

그러나 문학작품에서의 표현들은 대개 작가의 의도를 담은 것으로, 세밀한 서술방식을 통해 형상적 사유를 드러내는 등 예술적 요소를 담고 있다. 따라서 번역 생략은 종종 이러한 효과의 상실로 이어지거나 문맥의 변화나 의미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번역자의 생략은 부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④5 玉米用冰凉的巴掌把滚烫的泪水往两只耳朵的方向抹。
위미는 찬 손바닥으로 솟아나는 눈물을 닦아냈다.
- ④6 玉米是一个多么内向的姑娘, 内向的姑娘实际上多长了一双眼睛, 专门是向内看的。向内看的眼睛能把自己的内心探照得一清二楚, 所有的角落都无微不至。
위미, 이 내향적인 처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내면 구석구석을 살살이 뒤지기 시작했다.
- ④7 玉米坐下了, 向远处的巷头睷了几眼, 如俊家的看在眼里, 知道玉米这些日子肯到她这边来, 其实是看中了她家的地段, 好等邮递员送信呢。
의자에 앉은 위미의 시선이 몇 번이나 골목 끝을 향했다. 루쥘네는 위미가 요 며칠 이곳에 자주 오는 이유가 골목 끝에서 오는 집배원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 챘다.

예문 ④5를 보면 원문은 ‘솟구치는 눈물을 차가운 손바닥으로 양쪽 귓볼 쪽으로 닦아냈다.’라고 되어 있다. 위미가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형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문학작품의 번역은 의미전달만이 목적이 아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묘사한 내용이라면 이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밀한 묘사를 생략하고 의미전달 중심으로 번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예문 ④6의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위미는 무척이나 내성적인 아가씨다. 내성적인 아가씨는 사실 남보다 한 쌍의 눈을 더 가지고 있다. 이 눈은 오직 자신의 내면만을 살피며, 자신의 내면을 살살이 명확하

게 탐구한다.’ 내성적인 성격의 아가씨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위미가 얼마나 생각이 많은 아가씨일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번역문은 내용이 생략되면서 내성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한 인물 개인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로 바뀌고 말았다. 간접적 묘사가 직접적 설명이 된 것이다. 예문 ④7의 원문에서는, 루권네가 위미의 행동을 눈여겨보았으며, 위미의 속마음을 진즉에 알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즉 루권네는 지금 이 순간 눈치 챌 것이 아니다. 또한 위미가 루권네의 집을 자주 찾아온 이유는 그녀 집의 위치가 집배원을 기다리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집의 위치’가 자주 찾아온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생략된 채 당시 한 순간만을 중심으로 묘사하였다. 이로 인해 원문과 다른 내용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에서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내용상 중복이나 부연이 되는지, 혹은 작가의 문체를 드러내는 서술이나 묘사 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비록 한국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문의, 특히나 문학작품의, 표현 의도나 미적요소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V. 나가며

이상과 같이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중국어 복합문의 한국어로의 번역양상을 살펴보았다. 여러 개의 절로 나열된 복합문에는 절 사이의 의미관계를 알려주는 형태표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형태표지의 의미와 영향범주를 파악하는 것은 번역문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표지를 접속사와 부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형태표지의 의미가 문장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때로 형태표지가 생략된 원문에 대해서는 번역문에서 이를 파악하여 추가하는 수고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장의 관계를 명백히 전달하고자 하는 한국어 문장의 경향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어서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의 성격이 전환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역적으로 서술되는 절을 나열하는 중국어 문장에 대해, 한국어 번역문은 주로 절의 나열을 지양하며 수식기능을 하는 관형어나 부사어로 성격을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중국어와 한국어 문장의 서로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번역에서 생략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중언이나 부언으로 판단되는 경우 번역에서 생략되기도 한다. 그러나 묘사나 문체적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 의미중심으로 생략된 번역결과물은 원문의 문학적 효과를 반감하게 됨을 살펴보았다.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번역물과 번역현상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은 일반론과 나아가 번역이론을 도출 혹은 증명하는데 기초가 된다. 나아가 더 나은 번역을 위한 번역교육과 번역비평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번역결과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과 자료축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 Guak Seunghee. "Textuality and Translation Shift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 (2000): 95-108.
- Kim Yeunjung. "Corpus-based Analysis on the Patterns of Korean Interpretation of Chinese Passive Sentences: Focused on the Discrepancy of Voice". *The Chinese Studies* 60, (2012): 70.
- Kim Jina. "Error Analysis on Complex Sentences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ocused on Comparing Complex Sent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3, (2003): 96-97

- Park Jungjun. "Equivalence in Translation and its components". *Cross-Cultural Studies* 19, (2014): 252-254.
- Baek Sujin.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Translations with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Rich Dad, Poor Dad". *The Journal of East-West Comparative Literature* 24, (2011): 43-45.
- Baek Sujin. "Linguistic Analysis on Korean Translation Style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Korean Linguistics* 53, (2011): 61-91.
- Lee Seungil. "A Possible Unit of Translation: From the Lexico-Semantic Perspective of Corpus Linguistic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1. 2, (2010): 68-76.
- Jung Ryonghyun. "Some Problems of Chinese Translation". *The Journal of China Chosun Language and Literature* 3, (2012): 75.
- Bi Feiyu. *Yumi(Corn)*. <http://book.kanunu.org/book3/7330/>
- Mo Yan. *Sanshi nian qian de yici changpao bisai(The long distance running of 30 years ago)*. *The Novelettes of Mo yan(The part2)*. Zuoja Chubanse, 2002.
- Bi Feiyu(Bak Jiwoon). *Yumi*. Munhak Dongnae, 2008.
- Mo Yan(Yim Hongbin). *The long distance running of 30 years ago(The master becomes more humorous everyday)*. Munhak Dongnae, 2009.

< Abstract >

This study looks at the ways Chinese compound sentences are translated into Korean in Chinese literature. In compound sentences with series of clauses there exist marks that shows the relationships in meanings among clauses.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influence range among these

marks is found to be crucial in translation. Often in some sentences mark is omitted and in Korean translation the omitted mark is added, because Korean language has a tendency to deliver the exact relations of sentences. The study also looks at the ways in which the natures of the sentences that form the text are transformed. It shows that deductive clauses of Chinese language are often translated into the ornate style in Korean. This is another characteristic differences in two languages. Finally, the study looks at the omitted sentences. In translation repeated or added sentences are often omitted. But it was found that the translation where sentences are omitted just to deliver the meaning often reduced the literary effect of the original work. To analyze and describe the translated materials and the process serves the foundation to deduce or prove theories in translation. In addition this will further serve in translation education and criticism for better translation. Therefore, analysis and accumulation of the results on translated works should constantly be conducted.

Key Words : 번역(translation), 문학작품(literature), 접속사(conjunction),
부사(adverb), 수식(modifier), 전환(conversion)

